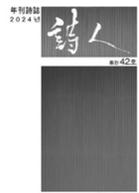


조태일 민중시인, 어둠의 시대 온 몸으로 맞서

'시인'지 통권 42호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 1만5000원



지난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군사 독재 정권 종식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수백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1980년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후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생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워 온 한 민중시인을 떠올리게 한다.

죽형 조태일 시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무려 9번의 계엄을 몸소 경험해 왔다. 특히 1980년 신군부가 계엄령 전국 확대에 앞서 감금한 예비 검속자에 포함돼 수감생활을 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 맞서 강건한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다. 1941년 곡성군에서 태어나 1999년 간암으로 작고하기까지 자연과 하나 된 순정한 정서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시인으로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다.

시대적 정치모순과 참혹했던 사회현실에 맞서 온 몸으로 저항했던 그는 시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겼다. 폭압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국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맞서 독재정권의 감시와 투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발과 폭로를 작품으로 소리쳤다.

억압 속에서 고뇌하는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독자들에게 저항 정신과 희망을 투영했다. 그의 이러한 문학적 행동은 강력한 목소리로 작동해 저항 담론의 정점에 서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는 현재.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 바쳤던 저항



조태일 시인의 생전 모습.

시인의 정신을 다시금 기릴 시집이 복간됐다. '시인'지 42호는 지난 1969년 8월 월간지로 창간한 '시인'지의 부활이다. 그가 사망한 뒤에도 복간과 재복간을 이어가다 지난 2019년 9월 중단된 뒤 5년 만이다. 사단법인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펼쳐 온 다양한 추모사업에 힘입어 조태일 시인 25주기를 맞아 통권 42호로 명맥을 잇게 됐다.

이번 호에는 조태일 시인의 삶을 조명하는 특집과 한국 문단의 굵직한 현안 등을 다룬다.

'시인'지로 등단한 박남준, 양성우 등 여덟 명의 신작 시와 광주

·전남의 젊은 시인들의 좌담을 비롯해 조태일문학상 수상자 조명, 김주대, 장석남, 차창룡 시인들의 신작도 포함됐다.

또한 조태일 시인이 후학을 양성했던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출신인 이은규, 이창수, 하린 시인 등 제자들의 작품도 수록돼 그를 기렸다.

조태일 시인은 광주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해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자유가 시인더러', '산속에서 꽃속에서',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혼자 타고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한 이래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등 불굴의 시인들을 발굴했다.

그는 1989년부터 광주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편운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고향 땅끝,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헌시

해남 땅끝

주현진 | 도서출판 북매니저 | 1만2000원



"그리움이 일어 파도가 될 때마다 나는 고향 땅끝을 생각하며 시를 썼다." 8순을 앞둔 송호 주현진 작가가 두 번째 시집 '해남 땅끝'을 출간했다.

수필집 '기다리는 마음'과 첫 번째 시집 '황혼'에 이어 3번째 작품집을 낸 이유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그의 고향 해남의 바다와 섬부터 송지면 송호리와 갈두해변을 거쳐 삼미봉과 사자봉에 이르기까지 그를 키워준 해남 땅끝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휘청청 보름달/달마산 봉우리에 떠오르면/영원한 솔피봉 전설을/꽃피우고/산 높고 물 맑은 고향땅..." 표제시 '땅끝 해남'처럼 그에게 해남과 땅끝은 창작의 원천이면서 삶의 의미였다.

5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서도 그는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그리며 애절한 마음을 가슴 짙하게 새겨 준다. 이 시집 한 권이 해남을 소개하는 어떤 기행서나 안내서보다 더 유용하고 알차다고 생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 마음/나직한 산기슭에/조그마한 초가집 두 채/내가 자랐지요..."로 시작되는 '고향

집'이나 '천지봉을 떠 오르는 붉은 태양은/사자봉을 녹여내고/새해 첫 아침은/따스한 온기로 사랑을 줍니다.'로 끝나는 '삼미봉 일출'처럼 그의 시에는 해남 땅끝이 단순한 지명이 아닌 그가 섬 없이 그리워하고 꿈꾸며 상상했던 이상향으로의 대상이 느껴진다.

"화려한 것, 소란한 것, 싫어하시더니/억척같이 일하시던 성품 그대로/하얀 차마저고리에 고무신 옆에 두고/꿈꾸시듯 그렇게 돌아가셨지요..."라는 '나의 어머니'처럼 그의 시 곳곳에는 또 어머니가 스며 있다. 주 시인은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어머니, 지금도 간절히 생각나는 수천, 수만번의 그리움은 나에게 원죄이면서 희망"이라고 했다.

주 시인은 "교사와 기업의 임원으로 몸담고 살아왔던 지난 날,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는 결코 문학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면서 "이 시집이 고향의 옛 정을 갈망하는 이 시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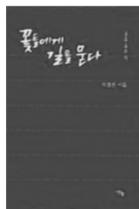
해남에서 태어난 주 시인은 대한문학과 동산문학을 통해 수필과 시인으로 등단했고 대한문학작가회 부회장과 광주수필문학회, 서문학회, 해남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찬 기자

세상의 얼룩을 닦아내는 어미의 마음

꽃들에게 길을 묻다

이경은 | 도서출판 시와 사람 | 1만2000원



'꽃,이라는 기표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서사를 이입시켜온 이경은 시인이 신작 시집 '꽃들에게 길을 묻다'를 출간했다.

꽃길은 꽃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시인이 말하는 꽃길. 이 시인의 시에는 끝없는 설의법이 엮여 있다. 둥근 물음표(해바라기2), 너만 괜찮다면(들국화), 남아, 그 날처럼(달맞이꽃), 너에게 물들고 싶다(봉숭아꽃), 영원이란 말은 어디에서 오는가(무궁화꽃) 등 많은 시편에서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시인의 물음표에 독자가 대답한다

환호하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통해 생명성을 고착시키고, 꽃이 지닌 의미를 애듯함과 그리움으로 노래해 온 이 시인. 불교적 상상력을 드러내는 시편에는 시적 대상들에 불교적 세계관을 남김없이 밝히고 현실을 내밀하게 반영한 시편에는 우리 사회가 지닌 그늘과 모순, 부조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얼마나 더 바라보면/너처럼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얼마나 더 햇빛에서 있어야/너처럼

노랗게 익혀질까/한 뼨 마음 발을 가꾸는데/몇 겹의 세월이 필요할까." (해바라기 전문)

이 시인의 시는 또 순하고 편안하다. 배꼽 밑에 새끼를 품고 있는 호박꽃 마냥 순한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울타리 없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호박꽃 마냥 편안하다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세상의 잡음과 얼룩을 닦아 어미의 마음이다. 시집을 출간하는 일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이 시인이 시집을 펴낸 이유는 역설적으로 '항상 갈증이 있었고 빈곤이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숨기고 싶은 비밀도 약점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인은 "내 시편 중에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이 정도면 과락은 면했구나 하는 작품과 이것을 여쭙자고 내 놓았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작품도 많다"면서 "모든 문학과 예술의 명작과 졸작은 독자의 몫인 만큼 독자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인은 민감한 언어의 더듬이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감각적 언어를 사용할 뿐"이라며 "어느 한편이라도 독자의 가슴에 위안과 꽃 길이 되어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해남에서 태어난 이 시인은 광주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까지 시 낭송 교재 '시 소리꽃으로 피다 1, 2, 3, 4집'과 '다형 시 사랑', 시집 '둥근 초록을 쓰다' 등을 펴냈다.

박찬 기자



제가 이 마을 이장입니다

김유솔 | 상상출판 | 1만6800원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의 첫 에세이가 출간됐다.

김유솔 완도 용암리 이장은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진취적 미래를 도모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단순한 귀촌의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닌,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 낸다. 특히 'MZ 세대'의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가 만들어 낸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진관 사장, 청년단체 대표, 용암마을 이장까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주저 없이 나아가 용감한 청년의 이야기. 그가 걸어온 길을 함께 체험하고 시골의 가치를 발견해 보자.



스위트 솔티

황모과 | 문학과지성사 | 1만7000원

한국과학문학상, 양성평등문화상 등의 수상 경력이 빛나는 '한국 SF의 미래' 황모과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됐다. 여덟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신간은 SF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날 현실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간 시공간의 경

계를 허물어뜨리고 인간성의 회복과 희망적인 미래를 말해온 황 작가는 표제작 '스위트 솔티'를 통해 메시지를 확장했다. 엄마 배 속에서 킬링필드를 경험한 캄보디아 출신의 친구로부터 탄생한 이야기를 주인공 '무티하라'에 투영해 모험을 그린다. 바다 위 배에서 태어나 여러 엄마의 손을 타며 자라난 무티하라는 그에게 짜고 매운 사람이라는 의미의 '솔티'라는 애칭을 붙여준 '딘다'를 만나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된다.